

# 중국. 중국인 이야기 (Geography is destiny.)

유 주 열 (한중투자교역협회 자문대사)

\* 삼성 이건희 회장: "앞으로 중국(중국어)를 모르면 먹고 살기 힘들 것"

\* 페이스북,저커버그:"我想要學習中國文化"

## 1. 중국(세계 GDP 2위) 급속성장배경

가.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발전 우선

-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나. 유리한 생산 및 시장여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소비시장

-천년의 축적 문화

다. 12차5개년계획(2011-2015)

- 경제성장(量) 보다 경제발전(質)

- 내수확대- 개인소득확대

라. 미국 추월 전망

- PPP(구매력평가지수) vs 일인당 GDP

## 2. 한중관계 급속 발전 요인

가. 지리적 인접성

- 서울-베이징(950km) 서울-도쿄(1150km)

- 일의대수(一衣帶水)

나. 중국발전지역- 중국동부

-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 동부 연안 : 국토9.7% 인구35% GDP 60%

다. 아시아의 지중해

- 중국과 한반도의 황해(서해)

라. 문화적 유사성

- 한자문화권. 유불교문화권
- 중국몽 vs 가치외교
- 공자와 은행나무
- 이백의 조발백제성

마. 한중 경제

- 한중교역 > 한일교역 + 한미교역
- 인적교류- 유학생 교민 여행자

바. 신(新)차이나 쇼크

- 중국인(돈)이 몰려온다
- 요우커(遊客) 감동제조업

### 3. 비즈니스와 중국문화

가. 중국인은 실리적 혈연적 애국적

- 10억 상인 (向前看 向錢看)
- 관시(關係)
- 애국무죄 (항일데모)

나 중국인은 대륙적 유연성

- 地大物博과 酒池肉林 \* 남굴(橘)복지(枳)
- Big Picture 사고 (山川人日)
- 上有政策 下有對策
- \* 차이나는 차이나(China)

다. 양(羊)의 문화 vs 패(貝)의 문화

- 도덕 정신(soft) (美. 善)
- 물질 부패(hard) (財. 賄)

라. 대륙(land) vs 섬(island)

- 위계질서 (農業) (禮. 儀典)
- 마(馬)씨 3총사
- 東西南北 vs 北南東西
- 개인주의 고립 (isolation)
- \* 창포(菖蒲) 와 상무(尙武)

마. 중화 중독(中毒)

- 인명의 중국화 (宋. 洪. 柳)
- 국지명의 중국화 (高麗. 漢陽. 安東. 州. 市)
- 한자의 코드화 (日本. 越南. 正宗. 東. 休. 仙)
- \* 백우(白羽) 선생 \* 기(氣)의 삼국지
- \* 국회배지와 무(武)촉천

바. 피휘(避諱) 문화

- 관세음(觀世音) vs 관음(觀音)
- 현무문(玄武門) vs 신무문(神武門)

4. 중국인의 징크스

- 가. 숫자 - \* 4- (死) \* 8- (發) \* 9- (久)
- 나. 동식물 - \*사슴(鹿)- (祿) \*박쥐(蝠)- (福)
- \*생선(魚)- (餘) \*배(梨)- (離)
- 다. 기타 - \*시계(鐘)- (終) \*우산(傘)- (散)
- 라. 국명 - \* 안남(安南) \*지나(支那)

<참고> 중국인과 인문교류 : 李白(701-762)의 조발백제성

조사백제 채운간 (朝辭白帝 彩雲間)

천리강릉 일일환 (千里江陵 一日還)

양안원성 제부주 (兩岸猿聲 啼不住)

경주이과 만중산 (輕舟已過 萬重山)

(아침 일찍 동트는 백제성을 출발하여 천리 떨어진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돌아가네. 협곡 양안의 원숭이 울음소리 끊어지지 않고, 내가 탄 조각배는 단숨에 수많은 산을 지내 왔구나)

##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경제

### ○ 갑오년(2014)의 명암

금년은 갑오년이다.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로 말처럼 앞으로 내 달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120년 전의 갑오전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갑오 청일전쟁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예언처럼 동북아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를 가져 올 기존의 강대국 중국(淸)과 신흥 강대국 일본(日本) 간의 전쟁이었다. 120년 후 지금 청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의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갑오년이 다시 돌아왔다.

해양굴기를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을 배후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탄생과 함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자위권(collective self-defence)행사 등 일본의 심각한 우경화는 이 지역의 불안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후의 질서(regime)하에 평화헌법으로 소극적인 평화주의를 택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기존의 질서를 새로 바꾸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여 군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은 동북아 지역이 가장 불안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0년 전의 청일전쟁 외에도 110년 전에는 러일전쟁 100년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상기된다.

### ○ 일본의 우경화 배경

2012년 12월 일본의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굴복시킨 자민당은 아베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고 여세를 몰아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압승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였다.

미국 하바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1930- ) 교수의 “일본 최고(Japan as No.1)”라는 책이 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GDP 세계 2위의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았다. 이 책은 급부상하는 일본에 대한 경고음(warning bell)으로 미국은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여 그 후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는 무력해져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 사회는 건강성과 여유성을 상실하였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과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건은 일본으로서는 내우외환의 좌절이

었다. 일본인들에게 정치 사회적 폐색감이 늘어나고 과거 영광의 대일본 제국으로 회귀코자하는 바람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떠오르는 중국은 GDP로는 일본을 능가하였다. 중국은 일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G2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반면에 일본은 지는 해로 무시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 조기 글로벌 화(化)로 성장의 속도가 빨라 한일 두 나라의 GDP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성장이 "전자 일본"의 프라이드를 심어 준 소니 와 도시바 같은 전자업계를 제패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자동차 산업도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넘보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산업은 과거 일본 기업의 하청이나 받는 수직적 관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 후발 신흥국으로 대우했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를 거두고 자국 중심의 외교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본의 유명한 월간지 분게이 쉰주(文藝春秋)는 2013년 10월호에서는 "한중(韓中)과 백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본에 대한 한중의 압박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 ○ 아베 총리의 친미행보

2006년도 이미 총리를 경험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스스로 비하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에서 일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사관(自矜史觀)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주장한 일본 정체성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우선 경제를 살려내야 했다. 그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1) 금융완화 2)재정확대 3) 성장전략 등 이른 바 "3개의 화살"을 제시하는 "아베노믹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심외교에서 미일동맹 강화에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아베총리는 "Japan is BACK"이라고 강한 일본의 복귀를 선언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이 자신의 필생의 과업(life work)이라면서 지난 해 10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식년천궁(式年遷宮)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12월에는 우방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야스쿠니 (靖國)신사참배를 감행하여 국내적으로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 ○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예상

조부로부터 우경화의 DNA를 물려받은 아베 총리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

상이 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극복하면 장기 집권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7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의 압승으로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이 완전 몰락 분열되어 아베의 자민당은 당분간 라이벌 없는 집권당이 되었다. 자민당이 2016년 예정된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는 6년의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해 예산 통과가 거부되어 일시 샷다운(shutdown)된 바 있는 미국은 예산 자동삭감(sequester)과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장성택 숙청으로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놓여 있는 동북아 안전보장을 일본에게 대폭 위임할 태세이다. 일본은 차제에 미국의 안보의 짐을 받아들이면서 재무장의 명분을 삼으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미국의 입장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발 빠르게 후텐마(普天間)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에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협력과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 ○ 한국의 삼중(三中) 정책

아베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지 일 년이 되지만 양국의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극히 이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양국 실무자들은 오히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급랭된 한일관계에서 새로 취임한 박대통령은 불안한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중시의 외교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순방 순서를 과거 미국-일본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미국-중국으로 바꾸었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침략의 정의 발언이며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박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계속 미루게 됨으로써 대일 외교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요인의 하나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괴리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인식이 퇴행적이라고 보고 일본은 한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항상 반성 사죄만 요구한다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불화는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정변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으로 미국은 한일 관계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 때 한일 관계가 박대통령의 지나친 원칙론으로 생각하였지만

최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박대통령의 아베 총일 불신을 이해하고 아베총리를 비난하고대 한국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 "적극적 평화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도 과거 역사의 전과(前過)를 인식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정중한 설득을 동반한 "스마트 우경화"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풀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하는 것은 좋은 베풀이 아니라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과 관계없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걸치기(double dipping)"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 것은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2014년도에는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집중하여 "중국 중시, 일본 무시"라는 불필요한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3개의 축으로 대외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즉 1)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2) 호주 캐나다등 중견국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중견국(middle power)외교를 강화하고 3) 중일의 갈등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필요하다면 중재 역할을 하는 이른 바 "3중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 ○ 일본의 우경화와 중일 갈등

일본이 미국을 업고 우경화 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라이벌 역사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정명가도(證明假道)였다. 중국(明)을 정복하러 가니 길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전국시대부터 예수교를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를 통해 중국(明)이 전성기를 지나 쇠퇴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명분과 의리가 강한 조선은 일본이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을 쉽게 내 주는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의 끈질긴 방어와 중국의 항왜원조(抗倭援朝)의 지원군으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그 다음이 1894년 갑오년의 청일전쟁이었다. 신흥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청의 북양함대를 격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청은 일본에 패배함으로써 신해혁명을 통하여 왕조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그 후 일본은 만주를 지배하고 중일 전쟁을 통해 중국의 대부분을 지배하였

다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 한다.

개혁 개방에 성공한 중국은 2010년 GDP가 일본을 능가 세계 2위로 진입하고 해양굴기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중국의 해군력 성장을 명(明)의 정화(鄭和)이후 “용(龍)의 재등장(Dragon swims again)” 으로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설정을 하여 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있다.

### ○ 신형대국관계와 중미

중국과 미국은 지난 해 6월 캘리포니아의 서니랜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국 간의 세력전이의 수단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이 있었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rebalancing)정책이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가 아니며 중국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목계로 보인다.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냉전시대에는 1) 서유럽 과 일본 2) 터키 와 한국이었으나, 중동 오일 쇼크이후 핵심이익은 1)중동 산유국 2) 해상교통로(sea-lane)의 보호였다. 그러나 최근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 가스(shale gas) 혁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종래의 중동 산유국과 시 레인 보호보다는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핵심이익에서 덕(德)이나 독(毒)이냐의 논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의식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서 중일의 충돌은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와 시정권(施政權)은 인정하여 미일안보조약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 ○ 댜오위다오 갈등과 2014년 중일관계 전망

중국과 일본은 2011년 이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라는 “섬”의 영유권 문제로 전쟁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심각한 중일(中日) 갈등은 35년 전 양국의 평화우호조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978년 8월 베이징에서 서명된 동 조약의 비준서는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鄧小平) 국가 부주석에 의해 교환되었다.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일본 총리는 문화대혁명을 마무리 하고 방일한 덩샤오핑을 극진히 영접하였다. 덩은 치바(千葉)의 신일철 제철소를 참관하고 신간선(新幹線)을 타고 교토(京都)등 유적지도 둘러보았다.

닉슨의 중국 방문에 따른 반소(反蘇) 미중(美中) 해빙무드에 자극받아 1972년 8월에 일본의 다나카(田中角榮) 총리가 중국을 극적으로 방문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은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평화우호관계의 국제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시대는 끝났고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추월하자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두 나라가 양보할 수 없는 “섬”이 표면에 떠오르면서 양국 관계에 태풍이라도 닥아 올 듯 거센 풍랑이 일면서 다시 갑오년을 맞이한 것이다.

아시아의 G2인 일본과 중국이 “섬” 문제 이외에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동북아의 한쪽에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피의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 다시 한반도에 불꽃을 튀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일이 서로 과거와 같은 평화 우호정신을 되 살려 동북아의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이 “섬”이 날카로운 창(槍)처럼 중일 양국의 가슴을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낼 뾰족탑(尖閣 pinnacle)의 섬이 될지, 한가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釣魚 fishing) 평화 우호의 섬이 될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중국과 일본은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라는 덩샤오핑과 후쿠다가 교환한 평화우호조약을 되 새겨 봐야한다.

갑오년 금년은 유달리 분쟁의 기운이 있는 해이다. 동북아에 있어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신냉전은 피해야 한다. 동북아의 나라들이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정치 안보에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협력만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